

고판화 전문박물관 원주 명주사에 오픈

2천5백여점 소장... 선학 스님 8년간 수집 목판본 위주, 불정심다라니경 등 진귀본 많아



고판화 박물관 소장품 중 하나인 불정심다라니경.

우리나라 최초의 고판화 전문 박물관이 강원도 원주 명주사에서 문을 열었다.

명주사 주지 선학 스님이 8년간에 걸쳐 모은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등지의 고판화 2천5백여 점을 소장한 고판화박물관(관장 선학)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20일에 개관식을 가진 것. 박물관이 세워짐으로써 유실되기 쉬운 고판화들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소장품은 주로 목판이 많은데, 조선시대의 <불정심다라니경>을 비롯하여 원·명·청대의 수륙제판, 삼존불경변상도판, 대세지보살판 등 오래 되고 예술성까지도 갖춘 작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소장품 중 하나인 조선시대의 <불정심다라니경>의 경우 호림미술관에 소장된 다른 인출본이 보물 제1108호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다.

국립추천박물관 최용천 관장은 "문화적으로 낙후된 곳에 이처럼 훌륭한 개인 박물관이 세워진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고판화의 가치를 일찍 깨달은 선학 스님의 안목을 높이 평가했다.

선학 스님이 고판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호국원광사(국방부 군방당) 주지 시절 중국 항주의 아시장을 방문했다가 고판화의 매력을 발견한 것이 계기.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출신인 스님은 예술적 감각과 열정으로 판화를 수집했다.

스님이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은 '중국 오대산 성경전도'다. "인출(印出) 솜씨가 워낙 뛰어난 작품인 데다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권견하고 부처님 진신 사리를 얻어온 곳인 오대산"이기 때문이다.

평소 자연, 명상, 문화가 있는 사람을 지향해왔다는 스님은 "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명주사에 문화적 요소를 갖춘 셈"이라며 "일반 사회인에 포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왔다"며 기쁨을 표했다. (033)766-7886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건봉사 능파교 옛모습 복구”

지원단 구성, 주변환경 개선 등 대책 세워

보수공사 도중 붕괴된 보물 1336호 건봉사 능파교(본지 478호 3면 기사 참조) 복구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 건봉사 보안원에서 문화재청 주도로 복구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문화재청과 고성군청의 관계자들과 철현 스님(건봉사 총무) 등 20여명의 참석자들은 능파교의 옛 모습을 최대한 복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건봉사 능파교 복구지도단(단장 정영호, 전 문화재위원)'과 실무지원팀(팀장 이만희, 문화재청)을 구성했다.

이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일제 강점기에 변형된 부분을 좀더 폭넓게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호안석축과 하대석까지 해제해서 변형된 부분을 조사할 필요성은 애초부터 제기되었으나 사업비 한계로 제외된 바 있다.

손영식 한국전통건축연구소 소장은 복구 가능성은 낙관하면서도, "충분한 조사와 풍부한 토의를 거쳐, 다리뿐 아니라 주변환경까지도 개선하는 제대로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인건에 공사 중 인 육송정 홍교(보물 제1337호)의 꼼꼼하고 정밀한 시공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했다.

실무지원팀장 이만희 사무관은 "안전하고 완벽한 복구로 능파교 원형을 복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축사 3층석탑 복원 청신호

원형 근접 도면 완성, 제작연대 파악 결실 부재 발굴·형태 추정 등도 순조

울산시 유형문화재 11호인 동축사 3층석탑 원형 복원의 길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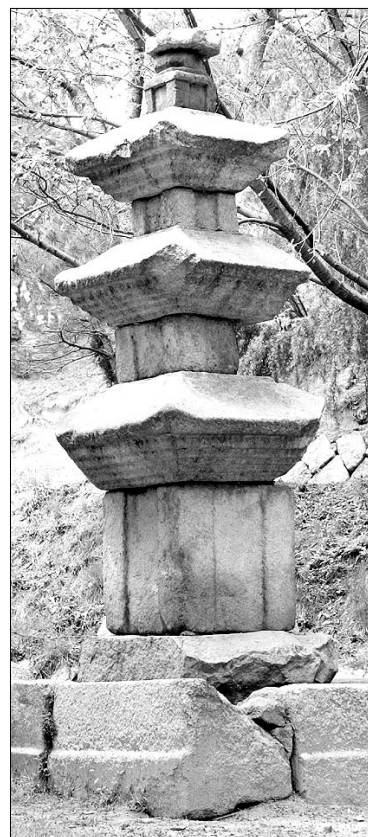
동축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해)은 3개 월여의 동축사 3층석탑 복원 사전조사를 통해 탑의 결실된 부재를 발굴하고, 남아 있는 부재를 실측하여 원래 용도와 달리 사용되고 있는 부재를 찾아내는 데 성공, 원형에 근접한 복원 도면을 완성했다. 도면을 토대로 연말까지는 이 석탑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전조사는 없어진 부재 형태 추정을 통해 원형을 찾아내고, 제작연대가 통일신라시대가 아닌 고려시대라는 것을 밝혀내는 성과를 올렸다. 한정호 수석 학예사는 "복원이 완료되면 방치되어 있던 유물이 제자리를 찾음은 물론 사찰은 상징물을 되찾게 되는 것이며,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울산시 용역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유적이 많지 않은 울산시가 공들이고 있는 동축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동축사 3층석탑은 1970년대 이래 동축사 외곽으로 이전되어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박익순 기자



동축사 3층석탑.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9>

생명과학의 윤리와 불교

과학 연구는 인간의 인식 한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이제 작게는 분자 구조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크게는 몇 백 광년이 떨어진 먼 곳의 별들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예전의 좁은 인식 범위에 비해 여러 기준들은 과학 지식의 발전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생명과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생명과학이 개체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생명체를 연구하고 있지만 생명과학의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지니온 우리의 인식 한계를 넓힘으로써 과거의 좁은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들의 관계 자체도

하게 존수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과학자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은 지극히 불교적이다. 불교가 과학이란 말은 우스운 말이다. 진정한 과학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야기된 국내 연구에 대한 국제 학계의 문제 제기를 보면서 단순한 개체 연구하는 생명과학이 너와 나 상생의 생명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좋고 중간도 좋으며 나중도 좋아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과정 자체가 동시에 곧 결과임을 아는 불자이기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연구 과정이 합리화 될 수 없다는 것도

연구결과는 인간사회에 큰 영향 줘 전체적인 관계와 조화 속 연구돼야

변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생명과학의 연구결과가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학이나 인문학에 영향을 미치며 또 우리의 윤리, 도덕, 관습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연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최근 네이처(Nature)라는 학회지에 한 국가에서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성을 거론하였고 국내 일간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에서 실행되어 발표되었던 연구는 그 방법에 있어서 240여개의 건강한 난자를 사용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것이었다. 기존의 인간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 그 실험 과정에서 결코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험 과정에서도 윤리적인 면이 엄밀

사실이다.

지식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기에 과학자는 늘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왜 이 연구를 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도구로서의 과학은 맹목적이며 또한 사람을 지극히 잘게 잘라 분석적으로 행한 특정 연구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전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에 과학 연구는 항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상황은 존재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닌 과학자라면 모든 생명의 인도자로서 연구는 항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상황은 존재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닌 과학자라면 모든 생명의 인도자로서 연구는 항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상황은 존재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닌 과학자라면 모든 생명의 인도자로서 연구는 항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될 수 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문병성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세계불교 법왕종)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무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사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 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특히 이 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 절이 있던 곳을 불신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 절은 일제시대 때 소실되었으며 소송 구원이 복원 불사 중 땅속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육하여 세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 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도량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천 합장